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더불어 사는 성도, 함께하는 공동체
- ◎ **선교주일:** 다음 주일은 바누아투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 ◎ **창립주일:** 다음 달 7월 13일 주일이 교회창립 15주년 주일입니다. 창립주일을 뜻있게 지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오늘까지 공모합니다(담당: 시무장로, 안수 집사).
- ◎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통가에서 사역하는 박종균선교사의 말씀과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 ◎ **알림:** 말씀 목상 교재인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을 원하는 성도는 매월 첫 주일까지 신청바라며 기존 구독하는 성도는 취소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담당: 정혜숙권사).
- ◎ **기도회:** 향촌 직분자 연합 기도회는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 ◎ **감사:** 선교학교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신 성도 감사합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6월 새벽기도회 본문

27일: 말라기 2:17~3:6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십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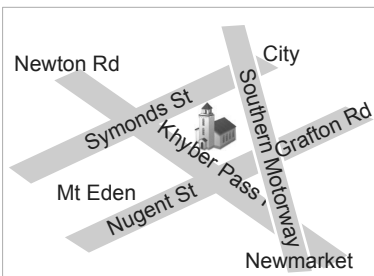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6월 22일 주일 16권 25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또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선장이라도 바람의 방향은 결코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의 돛은 마음대로 조절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손놀림으로 화단을 가꾸는 정원사라 할지라도 꽃이 피고 지는 일은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꽃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평생을 흠과 살아 온 농부라 할지라도 자연의 섭리인 계절을 좌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에 맞추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를 오게 하거나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산이나 비옷은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영주권 신청에 제동이 걸렸다는 가슴 아린 소식이 늦가을 칼바람처럼 차갑게 귓전을 맴 돌니다. 어쩔 수 없어 한국에 두고 온 자식이 너무 보고 싶어 “자리 잡히면 데려오려 했는데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라며 흘리는 어미의 눈물이 쏟아지는 겨울비 보다 진하게 얼굴을 타고 내립니다. 이민 세월만큼이나 슬한 잡일 끝에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비지니스가 여의치 않아 발을 구르면서도 애써 너털웃음을 지어보이며 태연한척 하는 모습이 막 시집은 새책시가 익숙치 않은 부엌 살림에 깨어진 간장 종지를 보며 어찌할바를 몰라 안절부절 하듯 어색해 보입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내일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질병의 순간 순간에서도 다 지나가는 한 여름의 소낙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증오의 대상에게도 사랑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배신의 대상에게도 용서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며 수줍게 미소짓는 여러성도들의 얼굴에 정말 보름달 만큼이나 환한 웃음이 피어나기를 기도로 소망하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 이태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성 찬 식
찬 송
헌 금 기 도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호세아 6:1-2
찬양대
다함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48. 시편 106편
사도신경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정덕수 장로
사도행전 24:10-23
나무십자가 찬양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태한목사
집례자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인도자
인도자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기 도
성 경
설 교
합 심 기 도
광 고
찬 송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임병숙 권사
출애굽기 3:6-12
내가 누구이기에/박종균목사
인도자
인도자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김정훈 형제

◎ 6월 교회악기

연합축제: 6월 2일(월요일)
공동체주간 수요예배: 6월 4일(수요일)
성찬주일: 6월 22일(주일)
향존직분자 기도회: 6월 29일(주일)
단기선교: 6월 30일(월) - 7월 7일(월)

◎ 6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민광호/석경숙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조은희 집사
다음 주일: 경덕현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조주찬 형제
7월 2일 수요: 남영수 집사
7월 2일 애찬: 이성철 목사
7월 6일 주일: 박덕철 장로
7월 6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 1.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 2. 단기선교 팀원들에게 성령충만과 효과적인 준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 3.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영적 분별력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 4. 영주권, 비즈니스,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 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선교와 증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해 적극적인 증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주는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의 소식입니다).

갈보리 성도와 목사님께

안녕 하세요.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 했던가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가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행복했습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도해주심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비전과 도전으로 2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교소식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수고와 섬김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시는 한사역자들, 고아원의 목사님부부, 대학생사역의 까오란교회(안풍유치원, 안풍중학교, 생명의 쌀, 사랑의 집짓기), 여기에는 늘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안풍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열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해야 만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소통 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요 축복의 통로임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यो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임을 다시금 목상하게 됩니다. 그들을, 또한 저희 부부를 하나님의 사역에 서로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이 축복ियो 기쁨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웃는 동역의 아픔과 기쁨이 공유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여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시는 말씀을 목상합니다.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함께 여기까지 증보와 동역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순종하시는 한분, 한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베트남 남서부의 기적의 현장에서 사랑의 빛 진자 이 지양 한 진숙 드림.

기도제목

- 1. 저희부부에게 성령충만과 지혜와 지식이 더하고 건강하도록.
- 2. 사역현장에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동탑의 목회자들이 성령충만하도록.